

목포 강진 무안 신안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 완도군, LPG 배관망 사업 추진

150톤 LPG 저장탱크·57km 배관망 등 설치  
등유 대비 30~50% 저렴한 가격에 공급 받아



완도군은 지난 7일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한 완도군 박안철, 최정욱 의원, 한국LPG배관망사업단 및 시행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은 도시 지역 대비 취약한 농어촌 지역

의 에너지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완도읍 19개 마을, 4,5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사업비 385억 원을 투입해 150톤 규모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 57km, 세대별 가스보일러, 안전 계량기 등을 설치하게 된다.

당초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는 341억 원으로 사업비를 확정하였으나 군수와 관계 공무원이 산업부, 기재부, 국회를 꾸준히 방문하여 안전 기준 강화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대상 지역 전 세대의 시공 필요성을 설득한 결과 사업비 44억 원이 증액되어 더 많은 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전통시장 등 공공장소에서 주민 불편 사항과 교통 혼잡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고,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인근 공사 시에는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하수도 정비 침수예방 사업 등 공공사업과 공사 기간 및 구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하여 공사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 추진으로 기존 죠사와 난방에 사용된 LPG 용기와 등유 대비 30~50% 저렴한 가격으로 연료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세대별 안전계량기를 설치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도시가스처럼 지하 배관으로 연결해 사용하게 되므로 가스

떨어질 걱정 없이 연료 공급을 받게 되는 등 완도읍의 에너지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

착수보고회가 개최된 이날 오후에는 사업이 추진되는 마을 이장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협의체 구성과 마을별 협조 사항을 논의하였다.

완도군은 이번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2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여 2021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이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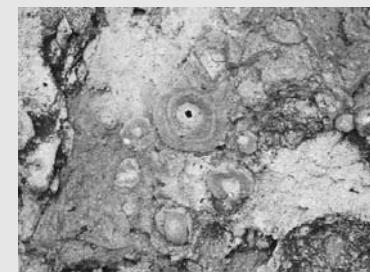
이와 더불어 사업에서 제외된 읍면 단위 지역의 사업 추진을 위한 산업부의 ‘종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지난달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련 사업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완도군의 예타 대상은 9개 읍면, 24개 마을, 5,424세대로 총 9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의 사업 추진 여부가 가시화되면 최종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도=김광수 기자

## 신안 선도, 백악기 화산활동 흔적 발견



신안 선도에는 아직도 화산활동의 흔적 있다.

신안군 지도읍 선도의 북쪽에 드러난 중생대 지층에서 대형 부가화산력(또는 점가화산력, Accretionary Lapilli)이 발견되었다. 부가화산력은 화산이 분출할 때 형성되는 야구공 형태의 구형에 가까운 암석으로 수중에서 화산폭발 시 많은 습기를 포함하여 끈끈해진 화산재가 뭉쳐서 만들어진다. 보통의 크기는 10mm 이내로 알려져 있다.

이번 발견은 신안군 지도읍 선도 북쪽의 벌덕산 인근에서 대규모로 발견되었으며, 100mm 이상 대형의 부가화산력도 발견되었다. 이는 신안군의 위치에서 과거에 대형의 수중화산폭발이 있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10mm 이내의 크기로 알려진 부가화산력이 이처럼 대형으로, 대규모로 나타나는 것은 특이한 현상으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다.

부가화산력이 발견된 선도는 중생대 백악기의 응회암과 화산을 겸토하고 있다. 세계유산과에 따르면, 신안갯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조간대 팔퇴적층의 형성과 해수면 상승에 따른 훌로세 시기의 퇴적진화과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숙한 다도해형 섬갯벌’이라 할 수 있다. 신안군은 이번에 발견한 부가화산력 및 발견지점과 같은 특이 지형들을 ‘한국의 갯벌’과 연계하여 지질명소 등과 같은 관광자원, 야외 현장학습지와 같은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강진군, 서울시 Non-GMO 가공식품 학교급식 공급시군 선정

### 서울시 학교급식에 연간 가공식품 12억 원 공급

강진군이 서울 시의 Non-GMO 가공식품 학교급식 공급사로 선정돼 우수 농산물 생산지로서 위상을 높이는 한편 서울시에 판로를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19개 자치구 초등학교(약 130개교)를 대상으로 Non-GMO 가공식품을 수집해 일괄 공급한다.

이번 공급업체 모집은 전국의 를 학교에 추천해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총 사업비 35억6천만 원으로 선정된 시군에서 약 12억 원의 가공식품을 서울시에 학교급식으로 공급한다. 강진군의 경우 강진농협에서 지역의 Non-GMO 가공식품을 수집해 일괄 공급한다.

이번 공급업체 모집은 전국의

영업신고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된 것으로 평가위원회의 엄격한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군은 우수 전통장류 생산지로 강진군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 선정에 주요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강진군 농특산물 직거래지원센터 운영, 강진농협 토컬푸드 직매장 개장 및 2018년 서울시 동작구와 공동

급식 납품 MOU를 체결한 점 등이 강진군만의 차별성과 우수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강진군 전통장류는 100% 강진산 콩과 3년 이상 자연 탈수된 천일염을 사용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65호 백장자 명인이 생산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2년부터 학교급식에 전국 처음으로 전통 된장을 지원한 이래, 2019년부터 전남도 Non-GMO 전통장류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 목포시,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저감사업 추진

목포시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기준 적용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삭

기 등이다. 지원금은 부착장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비용의 약 4~17%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선정기준은 차량 및 건설기계 연식, 목포시 연속 등록, 배기량 등

각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신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17일부터 28일 까지 시 환경보호과(목원동 트윈스타 4층)로 신청서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061-270-8543) 문의하면 된다.

목포=박정수 기자

## MEGABOX 광주첨단점

1관	버즈 오브 프레이
2관	클로젯
3관	클로젯
4관	클로젯
5관	남산의 부자들
6관	남산의 부자들
7관	히트맨
8관	히트맨
9관	버즈 오브 프레이
10관	클로젯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앱코로 35(쌍암동)



CGV\* 광주하남점

1관	클로젯
2관	클로젯, 히트맨, 버즈 오브 프레이
3관	남산의 부자들
4관	클로젯
5관	버즈 오브 프레이
6관	클로젯, 미니 특공대 -공룡왕 디노, 버즈 오브 프레이

문의전화 1544-1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400번길 30 테라스 56 피크닉몰 2층